

## 탐라개국신화

### <지·지리>

탐라현은 전라도 남해 중에 있다. 그 고기에 이르기를 「태초에 사람이 없었는데 세 신인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그 주산 북쪽에 구멍이 있어 모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땅이다.) 만이를 양을라라 하고, 차를 고을나라 하고, 셋째를 부을나라 하였다. 3인은 황량한 곳에서 사냥질을 하며 가죽옷을 입고 육식으로 살았다.

하루는 자색 흙으로 봉한 목함(木函) 하나가 바다에 떠서 동쪽 바닷가에 이르거늘, 가서 열어보니 함 속에 또 돌함이 있고 한 사람의 붉은 띠에 자색옷을 입은 사자가 따라왔다. 돌함을 열어 보니 청의를 입은 처녀 3인과 송아지·망아지·오곡의 씨앗들이 나타났다.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 사신입니다. 우리 임금의 이 세 딸을 두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서해 중에 산신(山神) 신자(神者) 3인 탄생하여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니 배필이 없도다’ 하시고, 이에 신에게 명하여 세 따님을 모시고 가라 하였습니다. 부디 배필을 삼으시고 대업을 이루소서!” 하고는 사자는 문득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3인은 나이 순으로 장가들고 감천(甘泉)과 옥토(沃土)로 나아가 화살을 쏘아 땅을 정하니, 양을나가 사는 곳을 제1도라 하고 고을나가 사는 곳은 제2도라 하고 부을나가 사는 곳을 제3도라 하였다. 비로소 오곡을 씨뿌리고 송아지 망아지를 치니 살림이 날로 풍족하여 갔다.

15대손 고후(高厚)와 고청(高淸)에 이르러 형제 3인이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탐진(耽津)에 이르니 때는 신라의 성시(盛時)이다. 이 때 객성(客星)이 남방에 나타나므로 태사(太史)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방인이

내조할 징조입니다.” 하였다. 드디어 신라에 입조하니 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장(長)을 ‘성주(星主, 그 별을 움직이게 한 상 때문이다.)’ 라 하고 차(次)를 ‘왕자(王子, 왕이 청을 사랑하여 무릎 밑까지 오게 하고 친자식 같이 한 까닭에 이름하였다.)’ 라 칭하고 계(季)를 ‘도내(都內)’ 라 하였다. 읍호를 탐라라 하였는데 이는 올 때 처음 탐진에 상륙하였기 때문이다. 각각 보개와 의대를 주어 보내었다. 이로부터 자손이 번성하여 공손히 나라를 섬기니 고(高)를 성주로 삼고, 양(良)을 왕자로 삼고, 부(夫)를 도상(徒上)으로 삼았다. 뒤에 양(良)은 양(梁)으로 고쳤다.

또 「삼국유사」 해동 안홍기(安弘記)에 구한(九韓)을 열거하니 탁라(毛羅)가 넷째번에 있다. 백제 문주왕(文周王) 2년에 탐라국 사자가 은솔(恩率)로 제수되고, 동성왕(東城王) 20년에 탐라가 공부(貢賦)를 바치지 않으므로 친정하여 무진주(武珍州:光州)에 이르니 탐라가 이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자 이를 중지하였다. 탐라는 곧 「탐무라」이다. 백제가 이미 망하자 신라 문무왕(文武王) 원년에 탐라국주 좌평 도동음률(徒冬音律)이 와서 항복하였다.

고려 태조 21년에 탐라국 태자 고말로(高末老)가 내조하니 성주(星主) 왕자(王子)의 작을 내리었다. 숙종 10년에 「탁라(毛羅)」를 고쳐 「탐라군」으로 하였다.

의종 때 현령으로 관(官)을 삼았고, 희종 7년에 현의 석천촌(石淺村)을 귀덕현으로 하였다. 원종 11년 역적 김통정(金通精)이 삼별초를 거느리고 입거하여 작란하니, 4년 후에 왕이 김방경(金方慶)에게 명하여 이를 토평하였다.

충렬왕 3년에 원은 목마장으로 하였다. 20년에 왕이 원에 입조하여 탐라를 돌려 줄 것을 청하니 원의 승상 완택(完澤) 등이 아뢰어 황제의 명을 받들어 탐라를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다음해 을미(충렬왕 21년)에 제주(濟州)로 고치고, 비로소 판비서성사 최서(崔瑞)로써 목사를 삼았다. 26년 원의 황태후가 또 마구간 말(廐馬)을 방목하였고, 31년에 우리에게 환속시켰다. 충숙왕 5년 초적(草賊) 사용(土用) · 엄복(嚴卜)이 무리를

모아 난을 일으키니 토인 문공제(文公濟)가 거병하여 모조리 죽였다. 원에 보고하고 다시 관리를 두었다.

공민왕 11년에 원에 예속하기를 청하니 원은 부추 문아단불화(文阿但不花)로 탐라만호를 삼고 본국 천례(賤隸) 김장노(金長老)와 더불어 제주에 도입하여 만호 박도손(朴都孫)을 장살하여 바다에 던졌다. 16년에 원은 다시 제주를 예속시켰다. 이때 목호(牧胡)가 강하여 자주 나라에서 보낸 목사 만호를 죽이고 반란하니 김유(金庾)가 토벌하기에 이르렀다. 목호는 원에 호소하여 만호부를 둘 것을 청하였는데, 왕이 주청하여 본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서관(署官)하여 목호가 사육한 말을 골라 바칠 것을 전과 같이 하겠다고 하니 황제가 이에 따랐다. 18년에 원의 목호 합적(哈赤)이 발호하여 관리를 살해하므로, 6년 후 8월에 왕은 도통사 최영(崔瑩)을 보내어 합적을 토벌하고 다시 관리를 두었다.

진산(鎭山) 한라는 현 남쪽에 있다. (두무악 또는 원산이라 하는데 그 산마루에 큰 못이 있다.) 또 추자도가 있다. (무릇 탐라로 가는 자는 나주를 출발하면 무안의 대굴포, 영암의 화무지와도, 해남의 어란진을 지나 무릇 7주야만에 추자도에 이른다. 해남에서 출발하면 삼촌포와 거요량 삼내도를 지난다. 탐진을 출발하면 군영포와 고자왕이 · 노슬도 · 삼내도를 지나 모두 3주야로 추자도에 이른다. 위 세곳의 배는 모두 이 섬을 경유하여 사서도 · 대소화탈도를 지나 애월포나 조천포로 이른다. 대개 화탈도 사이는 이수(二水)가 교유하여 파도가 흥흥하니, 모든 내 왕자가 이를 어렵게 여긴다.)」

(제주문화방송 「속탐라록」, 1994 발취)